



•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를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

• 시가지 재정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45 억 루블
지원

• 극동개발사, 자바이칼
지방과 부랴티야
선도개발구역들의 투자자 풀
구성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1월 30일, TASS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발전 국가 프로그램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 계획된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혔다.

<https://tass.ru/ekonomika/6056890>

2019년 1월 7일, Izvestiya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를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전화 인도 총리 모디와의 통화에서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동방경제포럼으로 주빈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들은 양국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논의하였고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급격히 발전해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https://iz.ru/831534/2019-01-07/putin-priglasil-modi-na-vostochnyi-ekonomicheskii-forum>

극동 국가정책

2019년 1월 29일, Izvestiya

극동에 첫 아이 출산 보조금 도입

극동지역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 아이 출산 보조금이 도입된다. 약 2만루블 가량으로 지역

최저생계비의 2배로 책정된다.

또한 극동연방관구 내 지역 산모보조금을 도입하여 (연방 산모보조금의 30% 수준) 둘째 출산시 지급할 예정이며 셋째부터는 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https://iz.ru/839311/2019-01-29/vyplaty-pri-rozhdenii-pervogo-rebenka-vvedut-na-dalnem-vostoke>

2019년 1월 17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에 주택 대출 이자율 인하

극동의 일부 계층을 위해 주택 대출 이자율을 5퍼센트까지 낮출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골리코바 러시아 부총리가 러시아 대통령 주재 내각 회의에서 밝혔다.

"극동 지역 내 주택 대출 이자율 5%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구 및 극동연방관구 내 농촌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가구입니다. 이러한 계층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항을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코즐로프 장관과 협의하였습니다. 가정에 필수적인 요소인 거주지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도가 효과적인지 관찰하고자 합니다."라고 골리코바 부총리가 밝혔다.

<https://minvr.ru/press-center/news/20745/>

극동경제

2019년 1월 29일, TASS

시가지 재정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45억 루블 지원

극동연방관구의 새 수도가 된 블라디보스토크는 2019년도 시가지 재정비를 위해 러시아 연방재정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연해주 주지사와의 면담 이후 밝혔다.

<https://tass.ru/ekonomika/6052072>

2019년 1월 9일, Interfax

가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아무르주 재정수입 17억 루블 이상

아무르가스가공공장 건설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을 통한 작년 9개월간의 아무르주 재정수입은 17억 루블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995572&sec=1679>

2019년 1월 29일, TASS

연해주에 무소유주 토지 관리를 위해 토지은행 조성

농업 분야 프로젝트 투자자들에 있어 관심사인 연해주 내 임자 없는 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은행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혔다.

"토지은행을 만들어 모든 무소유주 토지를 지역정부 또는 극동연방개발사가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농업 투자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 블라디보스토크 실무회의를 마치고 밝혔다.

<https://tass.ru/ekonomika/6052064>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9년 1월 29일, TASS

극동개발사, 자바이칼 지방과 부랴티야 선도개발구역들의 투자자 풀 구성

극동개발사가 자바이칼 지방과 부랴티야 정부와 공동으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 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극동개발사 전문가들은 치타와 울란우데를 방문하여 자바이칼 지방과 부랴티야의 사업가들이 선도개발구역에서 활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입주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해당 업무에 지역 개발 기관들인 자바이칼지방개발사와 부랴티야지역발전재단도 참여한다.

<https://tass.ru/ekonomika/6054449>

2019년 1월 28일, RIA News

극동개발 국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학생 참여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극동개발 국가프로그램 대학생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전했다.

트루트네프 전권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학생들은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고 극동대학 졸업생 취업지원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우수 인력을 극동연방관구로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경제우선분야 지원, 도시환경개선, 환경보호,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에 대한 제안을 전개하였다.

<https://ria.ru/20190128/1550029914.html>

2019년 1월 28일, TASS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러시아의 리더들' 선발전 결승 진출자들과 극동개발문제 논의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러시아의 리더들' 경영인 선발전의 극동출신 결승 진출자들과 만나 극동 발전 아이디어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 의하면 '극동헥타르' 정책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 인구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논의되었다.

<https://tass.ru/obschestvo/6048643>